"현장 행정 · 혁신적 행정 추구해야"

김관영 도지사, "전북의 변화 ·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 강조… 민선 8기 전북도정 변화 예고

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현장 행정'과 함께 '혁신적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장 행정'과 함께 '혁신적 행정'을 펼쳐 달라고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국 업무보고에 대해 현황 보고를 넘어,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위한 설계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행정과 함께, 혁신적 행정을 추구해야 된다"면서 "각 사무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등 우리가 벤치마킹할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통상적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 대책, 기업 유치, 청년 대책 등 정책 시야를 미래로 넓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이 혁신의 리더가 되고, 국비 유치를 넘어 기업과 민간의 역동성을 견인하는 변화의 촉매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1개실·국간 3시간씩 잡으며, 강도 높은 민선 8기 전북도정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김 지사는 7월 4일 첫 번째 정책조정회의에서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한 도민의 안전을 강조했으며, 5일 감사원 보고에서는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와 관련해 공직기강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여성의 희망을 이야기 하다'

민선 8기 단체장, 전북여성화요(和曜)간담회서 '첫 소통'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지난 5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전북여성화요(和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목영숙 여사,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진희 여사, 최경식 남원시장과 박선영 여사, 유희태 완주군수와 박길주 여사를 비롯해 도내 여성 단체장 및 학계, 경제, 정계, 언론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단체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전북의 변화와 혁신의 실현에 있어 전라북도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정희 센터장(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여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하여 여성 리더들이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계가 한 마음 한뜻이 되도록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선진사회이기에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체계로 정책기반을 강화하여, 각계각층에서 여성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여성 인재를 육성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 정헌율 시장은 여성과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출산에서 돌봄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며 전국 최고의 여성·아동 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여성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출산·보육정책을 분리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여성들의 행복이 곧 완주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부터 지속된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도내 분야별(정치, 경계, 언론 등)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네트워크 장으로 지역 여성 현안 공유 및 아젠다 형성을 위하여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심의 · 의결… 보안 강화 · 서비스 확대 · 인프라 구현 등 계획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국가보안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는 제9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서면심의를 통해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국민 안전 핵심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확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구현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통신망 시험·검증 체계 개선,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SLA)지표 개발, 사용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해 해킹 등 사이버 공간과 외부인 침입 등 물리적 보안에도 대비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유형별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에 특화된 영상정보 공유 서비스를 시범 개발·도입해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통합 공공망 협의회를 통해 상호운용 협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 기술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도입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마련됐다"며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 사용기관 활용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 안전에 선봉이 되는 통신망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 신지식농업인 대상자 발굴

29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부서에 방문 접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북 농업을 이끌어나갈 2022년 신지식농업인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022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대상자 신청?접수를 해당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7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지식농업인은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를 통해 농산업을 개발·개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자로 매년 엄격한 심사와 조사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대상은 나이, 성별, 학력과 관계없이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저장 등 농업 및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성, 실현성, 가치 창출성,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며,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자료 일체를 갖추어 해당 시군 농정부서를 방문해 제출(우편 제출 불가)하면 된다.

해당 시군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전북도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현지실사를 통해 올해 12월에 최종 선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누리집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안내 공고문과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유호연 도 농업정책과장은 "신규 선정된 신지식농업인은 우리 농업·농촌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전북도 농업 발전을 책임지고 선도할 우수한 농업인들이 기한 내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24일까지 접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신규 전입 청년들의 원활한 교류 활동을 위해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체류 중인 청년과 신규 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애착심 형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에 거주하거나 취업, 학업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만18~39세)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동아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1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누리집(www.jb2030.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인 동아리 중 고득점 순으로 10개 동아리를 선발하며, 선발 시 활동비 명목으로 각 팀별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활동 지역이 전북도가 아닌 경우, 특정 정당 및 종교 목적 활동,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수 기자

2022년 2학기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 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옥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매일 부사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양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 연사 강사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관련 디스트 • 웅변코치사 • 심리상담사
• 저서 "365 스피치 지혜라니 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 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마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개강 : 9월 첫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 강 료 : 15만원 • 문 의 : 010-8448-2570
• 전담교수 : 문정태(마술지도사, 치매인지놀이협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